



광남일보



조건 제 8051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음력 2월 7일)

행정통합 격변 속 깜깜이 선거구·공천 어찌나

국회 정개특위 지방의원 정수 확정 지지부진 예비후보 “어디 가서 얼굴 알리나” 혼선 가중 시장 경선 정체불명 문자 고발전 ‘피로감’ 확산

6·3 지방선거 D-70

6·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선거구도는 역대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며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8·19면

40년 만의 광주시·전남도 광역 행정통합이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초대 특별시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출제 불분명한 득표율과 카드뉴스를 둘러싼 고발전으로 비화되면서 구태의연한 선거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일괄 상정, 심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경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읊소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준비도 못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네가 선거구에서 배제될까 걱정”이라고 토로하고도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의원 정수를 인구 비례에 맞춰 현재 (23명)보다 10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깜깜이 선거에 대

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아권에서는 광주·전남에서 사실상 일당독점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이 낮은 불합리한 현상으로 보면서 전향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광주를 찾은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광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고 특히 비례대표는 30%로 확대하는 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진보당 또한 이날 시의원 후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원 정수를 늘려 전남과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논란도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예비경선 득표율과 후보별 순위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최근 치러진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별 득표율이 담긴 출처 불명의 득표율 문자가 샬포되면서 후보자들 사이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사태와 관련해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 관련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눈속임용 그래픽’을 문제 삼으며 고발전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통합특별법 제정부터 여당 경선까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졸속 선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초반 경선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한 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선거구 획정도 차일피일 밀리며 역대급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매화향기 속으로 맑고 화창한 봄날씨를 보던 24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활짝 핀 매화꽃 사이길을 걸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봄의 전령 매화는 피어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눈 속에 피면 ‘설중매’, 달빛과 어울리면 ‘월매(月梅)’, 빛속에 피면 ‘우중매’라 한다. 매화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서 희망과 시작을 상징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반도체 호재에 광산업 1호 ‘우리로’ 상종가

4거래일 연속 급등···ETRI 원천기술 이전 주목 젠스 황 ‘미래 핵심기술’ 발언에 광통신주 강세

중등발 긴장 고조에도 광통신주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 광산업 1호 기업인 우리로가 광반도체 기대감과 한 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 이전 호재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로는 이날 전장 대비 29.97% 오른 45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중등 전장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우리

로는 광통신 및 양자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광분배기 등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1998년 설립 당시 우리로 광통신이라는 사명으로 광산업 1호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2년 국내 광산업체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광통신 핵심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PLC(광반형 광회로 소자)와 PD(포토다이오드)다. 데이터센터와 5G 통신에 활용되는 10G·25G·50G·100G급 PD와 SPAD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로는 ETRI로부터 차세대 초고속 광통신 핵심 부품인 200Gbps

급 광검출기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된 사례로, 사업화와 양산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젠스황 CEO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GTC 2026’에서 광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언급하면서 광통신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의 광트랜시버 제조업체 루멘텍홀딩스와 코히런트에 약 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통신주로 분류되는 한국철강소재 (29.84%), 이노인스트루먼트 (29.82%), 빛과전자 (17.05%), 머큐리 (28.49%) 등도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전남, 차량 5부제 시행 오늘부터 번호별 출입 제한

중등 정세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청 출입 차량에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하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25일부터 시·도청 출입 차량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자원 수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다.

요일제는 시·도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 가능 요일이 제한된다.

적용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경차,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상시 출입이 허용된다.

양동민·이현규 기자 yang00@

2026 제1차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 10면

2026 나주 방문의 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now naju

www.naju.go.kr/tour